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7. 13.(월) 11:00

(지면) 2026. 7. 14.(화) 조간

배포 2026. 7. 13.(월) 06:00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재활용부터 인력 양성까지, 실행력 높은 이행약정 체결

-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양국 간 역할 분담 및 수행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인도네시아 정부(경제조정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교통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에 요구되는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

이번 이행약정은 지난 4월 1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발전시켜 양국의 역할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 후속 조치다.

*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이행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이 종료된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로 개조하여 실증하고*, 탄소 포집·저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 설계, 해상공사 등 사업 전반을 총괄 주도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인허가 발급 등 현지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연구개발(R&D)) 탄소저감형 해양플랜트 용도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025~2028, 국비 350억 원)

아울러, 양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과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육 협력 사업도 본격화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Sekolah Tinggi Ilmu Pelayaran Jakarta)에 교육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예산 지원,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인도네시아는 현지 교육생 추천과 관계기관 조율 및 물자 지원을 맡는다.

* (ODA)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2025~2029, 국비 43.6억 원)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역할과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신속히 창출 하겠다.”라며, “인도네시아와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51-773-5240)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51-773-5664)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대한민국

OPEN 자유
이용